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윤리와 사상]

1	③	2	①	3	③	4	②	5	②
6	②	7	⑤	8	④	9	①	10	⑤
11	①	12	④	13	⑤	14	①	15	④
16	③	17	⑤	18	④	19	④	20	⑤

1.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삶의 태도 이해하기

가장 편지를 쓴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으므로, 자연의 인과 법칙을 깨닫아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스피노자는 인간이 자유 의지를 지니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물에 대한 관조를 통해 삶의 필연성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출제의도] 묵자의 평화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묵자의 주장이다. 묵자는 친소(親疏)를 분별하는 사랑이 아니라 겹애(兼愛)를 바탕으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비공(非攻)을 실천하여 천하의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묵자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어 전쟁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3. [출제의도]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신이 창조한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과라고 보았으며, 자신보다 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천상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는 이성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신앙과 이성은 구분되지만 모순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공통적으로 인간은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4. [출제의도] 원불교와 동학 사상 비교하기

갑은 원불교 사상가 박중빈, 은은 동학 사상가 최제우이다. 원불교는 우주의 근본 원리인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동학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한율님이 내재해 있다고 보고, 본래의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로 잡아야(守心正氣)한다고 본다. 한편 원불교와 동학은 공통적으로 신분의 차별이 없는 이상 사회를 현실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5. [출제의도] 에픽테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스토아학파 사상가 에픽테토스, 은은 에피쿠로스이다. 에픽테토스는 자연의 법칙을 파악하여 자신의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감각적인 폐락보다 정신적인 폐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에픽테토스와 에피쿠로스는 공통적으로 마음의 평온함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 [출제의도]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케인스, 은은 하이에크이다. 케인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국가의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보았으며, 유효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불황을 극복하고 완전 고용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하이에크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약화시킨다고 보았으며,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장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7. [출제의도] 흄과 칸트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흄, 은은 칸트이다. 흄은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가 되는 것은 감정이라고 보았으며, 이성은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으며,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여 도덕 법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8. [출제의도]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 이해하기

제시문은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를 이상 사회로 보았다. 공산 사회에서는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가 실현되고, 계급과 국가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라고 보았다.

9. [출제의도] 지눌의 수행 방법 이해하기

그림의 스승은 지눌이다. 지눌은 단박에 깨달았더러도 [頓悟]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점진적인 수행[漸修] 방법으로 선정[定]과 지혜[慧]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지눌은 타고난 불성(佛性)을 깨닫기 위해 내적 공부[禪]와 외적 공부[教]가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0. [출제의도] 밀과 벤담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밀, 은은 벤담이다. 밀은 폐락에는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있다고 보았으며, 폐락을 평가할 때는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벤담은 폐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으며,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폐락은 양식으로만 계산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밀과 벤담은 공통적으로 권리의 원리를 기준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 [출제의도]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프로타고라스, 은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라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각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유덕하게 행동할 수 있고, 진리는 보편적이라고 보았다. 한편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와는 달리 진리 탐구에 있어서 감각적 경험보다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12.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주희, 은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만물의 본성에 이치가 내재한다는 성즉리(性即理)를 주장하였고, 천하의 사물에는 모두 이치가 존재하므로 자신의 삶을 지극히 하려면 사물을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格物致知]고 보았다. 반면 왕수인은 마음이 곧 하늘의 이치라는 심즉리(心即理)를 주장하였고,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제거하여 그 본체의 바음을 온전히 회복해야 지극한 선[至善]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13.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이황, 은은 이이이다. 이황은 사단(四端)을 이(理)에, 칠정(七情)을 기(氣)에 대응시켜 사단은 이가, 칠정은 기가 각각 발(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이는 칠정과 사단을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보고,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황과 이이는 공통적으로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기를 탄 것이라고 보았다.

14.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嗜好)라고 보았으며, 사덕은 사단을 일상에서 확충할 때 형

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황과 이이는 정약용과 달리 사덕을 마음속의 이치[理]라고 보았으며, 사단은 사덕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실마리[緒]라고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플라톤, 은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기개와 욕망은 이성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로 중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품성적 덕은 습관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무엇인지 알아도 반드시 실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맹자의 사상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맹자이다. 맹자는 차마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다스림[不忍人之政]을 펼쳐야 한다고 보았고, 왕이 인의(仁義)를 해쳐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면, 그 자격이 박탈되어야 한다[易姓革命]고 주장하였다. 또한 맹자는 왕이 백성의 안정된 생업[恒產] 유지에 힘써야 한다고 보았고, 그래야만 일반 백성들이 변치 않는 도덕심[恒心]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7. [출제의도] 흉스와 로크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흉스, 은은 로크이다. 흉스는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 개인은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로크는 구성원이 사회 계약을 통해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에 양도한다고 보았고,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흉스와 로크는 공통적으로 국가를 각 개인이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합의한 산물로 보았다.

18. [출제의도] 순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순자의 주장이다. 순자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욕망을 지닌다고 보았으며, 선왕(先王)이 제정한 예의(禮義)에 따라 욕망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순자는 타고난 본성을 따르면 사회가 혼란해지므로 인위(人爲)를 통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노자와 공자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노자, 은은 공자이다. 노자는 통치자가 도(道)에 따라 무위의 정치[無爲之治]를 한다면, 백성은 저절로 부유해지고 소박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공자는 통치자는 먼저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덕(德)과 예(禮)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덕치(德治)를 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노자와 공자는 공통적으로 통치자가 이상적인 정치를 하려면 도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 [출제의도]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키르케고르, 은은 사르트르이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신 앞에 홀로 서서 모든 것을 신에게 내맡기는 주체적 결단을 할 때 참된 실존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을 정해 줄 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의지로 참된 실존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보편적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